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현지 표정

16일 9번째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군 일대 주민들은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지난 2년여 동안 경찰수사가 거의 중단되었고 방범 활동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분노하면서도, 또다른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주민간 신고체계 마련, 자율방범대 조직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김미정 양의 동네 주민 이명순(60·여·태안읍 능4리 423)씨는 “화성에서는 딸자식 키우기가 겁이 난다. 저녁시간에 조금만 귀가가 늦어도 불안해서 찾아나서야 한다. 형편이 허락된다면 가까운 수원시로 이사를 가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해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89년말까지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태안읍 황계리와 진안리, 정남면 관항리 등지의 주민들은 20~40대 남자들이

울방범대를 조직, 야간순찰활동을 펴왔으나 울들어 사건발생이 뜸해지고 주민 관심도 줄어들어 호지부지됐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번에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자, 마을별로 주민 모임을 갖

고 자율방범대 부활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황계2리 주민 이봉재(43)씨는 “지난 '87년 1월 5번째 살인 사건이 마을 근처에서 발생하자, 주민들이 돈을 거둬 '마을 입구에 초소를 짓기도 했고 조를 짜 순찰활동을 펴기도 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단됐던 자율방범대 활동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88년 9월16일 여중생 박상희(당시 14·안용중1)양이 희생된 8번째 사건이 발생, “범인이 여학생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각급 학교에서는 같은 마을에 사는 학생들끼리 짝을 지어 귀가시키는 귀가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야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폐지해

가며 각 학교는 학생들의 무사 귀가에만 열을 올려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어두워지기 전인 오후 5시30분~6시 사이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관계자들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숭진 김양의 담임교사 이범용(31)씨는 “미정이가 사고를 당하던 날도 어둡기 전에 서둘러 귀가시켰다. 때마침 같은 마을에 사는 학생이 없어 집 부근까

지만 같이 갈 학생을 짝지어 보낸 것이 뜻밖의 사고를 자초하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16일 밤 10시께 태안읍 병점의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가까운 수원 등지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부모 50여명이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며 학생들을 마중나와 있었다. 대부분이 중3

또는 고3 여학생의 부모들인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야간수업을 해야 하는 중3과 고3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중을 나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이외에도 학부모들이 이웃 주민과 조를 짜, 봉고차를 임대해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모습도 화성과 수원 일대 여중·고교에 서는 흔히 볼 수 있다.

학부모 정민자(40·여·태안읍 병점5리)씨는 “이 지역 딸 가진

부모들에게는 밤 마중이 일과가 되어 있다. 고생은 차치하고 딸 아이가 무사하게만 돌아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심정”이라고 불안해했다.

이번 사건이 나자 화성군 태안읍과 정남면에서는 16일과 17일 잇따라 마을별 반상회를 개최, 주민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4년여동안 이곳에서는 낮은 사람이 눈에 띄거나,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경우 마을 이장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는 체계가 어느 지역보다도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될 뿐 아니라, 경찰의 방법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주민 스스로가 이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반상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은 반상회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경찰의 민생치안 허점과, 한동안 사건 발생이 뜸해진 데 따른 주민들의 나태함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자체분석하고 주민 모두가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다짐하기도 했다.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은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일말의 단서조차 남기지 않고 있는 얼굴없는 범인을 쫓는 데 이곳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더이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주민은 단 1명도 없다.

따라서 주민들은 경찰의 좀더 적극적인 수사와 장기적인 방법 활동체계 마련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 이후, 화성 일대에 경찰관이 대거 투입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수사가 넘비 꿔듯이 꿔다가 잠잠해지는 때가 언제인지를 주민들은 분명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한 주민의 말 속에는 4년 동안 쌓여온 화성 주민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화성=배경록 기자〉

“밤이 두렵다” 자율방범 부활추진

화성주민 학생귀가 마중...신고체계 마련도